



란나왕국의 흔적을 찾아서 Ⅱ

: 위양까롱의 도자기

Tracing Lanna Kingdom Ⅱ : Pottery of Wiengkarong

배수경*

Soo Kyung BAE

태국에서 도자기¹⁾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그 역사가 깊다. 도자기법을 비롯하여 형태, 사용방법 및 도자기를 통해 드러난 생활상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빵, 파야오 등지를 중심으로 한 란나지역의 도자기에 관한 연구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란나문화와 연관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예술적인 가치를 부각시켜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미 매형썬 구릉지대의 동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각종 토기류로부터 시작하여 치앙마이, 람퐁, 람빵 등지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는 도자기는 란나인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수준을 대변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드러난 흔적들에 따르면 란나의 도자기 생산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란나왕국의 전성기에 제작된 도자기는 우수한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강사, thai@iseas.kr.

1) 도자기란 흙을 빚어 구운 모든 기물을 말하며 구울 때의 온도에 따라, 태토의 굵기가 각각 다르다. 그릇의 굵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기(土器), 도기(陶器), 석기(石器), 자기(瓷器)등으로 구분한다.

기술과 아름다운 문양으로 태국 도자기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양까롱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도자기는 란나 도자기를 대표할만한 작품들로 오늘날까지 란나인의 정신을 계승하여 도자기 생산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양까롱 도자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 지역의 도자기를 통해 란나인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위양까롱 출토 도자기 @Moohin

프라버리한텡타니 승려가 저술한 태국연대기와 불기 25세기를 기념하여 쟁왓²⁾ 치양라이에서 발간한 치양라이 역사서에 따르면 위양까롱은 이미 기원전 1세기 경에 세워진 도시로 2000년 이상된 고도라고 믿어진다. 1933년 쟁왓 우프라딕의 6대 도지사인 프라야나킨프라람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한 위양까롱 도요지는 쟁왓 치양라이 압파³⁾ 위양빠오에 소재하고 있다. 특별히 200여기의 가마터가 라우강변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위양까롱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가마터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1000기가 넘는다 하니 가히 태국을 대표하는 도요지라 할만하다. 이러한 가마터를 위양까롱을 중심으로 서쪽은 빠싼 도요지, 동쪽으로는 빠헤우 도요지, 빠움 도요지, 빠동싼꾸 도요지, 후위이파오 도요지 그리고 후위이싸이 도요지

2) 한국의 행정단위인 도(道)에 해당된다.

3) 한국의 행정단위인 군(郡)에 해당된다.

등으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다. 이러한 도요지는 각각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개 두 가지 형태로 지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경사면에 땅을 굴처럼 파서 만든 형태로 주변을 독을 쌓듯 높게 세워 가마터로 사용하였고, 두 번째로는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로 둥글게 지붕모양을 만들어 진흙으로 덮은 형태인데 이러한 가마터는 보통 4.8미터×2미터의 작은 가마터에서 나타난다.



<그림 2> 가마터 발굴현장
@Sayan Praicharnjit

위양까롱을 이야기 하자면 개인적인 기억부터 떠올리게 된다. 태국 유학을 시작한 1989년도에 걸가이드 치양마이 지부의 초청을 받아 위양빠오의 한 마을에서 김치담기 시범을 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찾아가 마을을 포함하여 인근 마을 서넛까지 꽤 많은 주민들과 함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치담기를 했었는데 이 때 내 눈을 끌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용기와 닮은 항아리였다. 김치를 담기 전에 김칫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바로 알아듣고 김치 담을 용기로 준비한 것이었다. 게다가 마을 이장님의 댁에서 준비해온 김칫독은 우리의 청자 항아리와 꽤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자기에 관해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한국에서 자주 보아 왔던 익숙한 물건들과 닮은 그 용기들을 보고 이것이 태국 것인지 물어 보았고 ‘위양까롱’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지역의 용기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뒤로 두어 차례 위양까롱의 몇몇 가마터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고, 다시금 란나인의 예술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림 3> 위양까롱민속마을 입구
@ChangNoi

위양까롱은 란나의 주요도시⁴⁾를 관통하는 곳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도요지는 그 주변의 산악지대를 따라 만들어져 있었고 주변으로는 강줄기가 나 있었기 때문에 버마나 아유타야와 같이 주변의 강성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도요지를 비교적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위양까롱의 독자적인 도자기문화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인들에 의해 태국의 대표적인 도요지로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란나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 위양까롱 위치
@Google_maps

위양까롱 도요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형태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다.

4) 차양마이, 치양라이, 파야오, 람땡 등의 주요 란나 지역을 이어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약을 입힌 후에 검은색으로 무늬를 그린 형태와 한 가지 색으로 유약을 입힌 형태의 도자기가 출토되었고,

두 번째로 첫 번째 형태와 거의 동일하게 유약을 바른 뒤에 검은 색으로 무늬를 그렸으나 다른 점은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형태보다 훨씬 무겁고 거칠며 유약의 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는 빠움 도요지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세 번째는 빠움 도요지의 청자인데 이는 중국 송대의 도자기와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소 두껍기는 하지만 광택이 좋고 잔금이 그물과 같이 도자기 전면에 골고루 퍼져있다. 색은 크림색으로부터 황색, 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도자기의 굽은 바깥으로 밤색 칠을 하였다.

네 번째는 왕느어 도요지의 도자기로써 주로 큰 접시와 큰 대접, 작은 꽃병이 많이 출토되었다. 유약을 입힌 몸통은 녹색을 띠고 광택이 있으며, 깨진 부분은 유리가 갈라진 것과 같다. 적지 않은 수의 도자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무늬는 굽으로부터 주둥이까지 손톱으로 굽은 자국으로 무늬를 내었고 주둥이 부분은 상하 곡선으로 빙 둘러 모양을 내었다. 접시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접시의 가장자리를 비틀어 톱니모양의 문양을 넣었는데 이는 다른 도요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양이다.

다섯 번째로는 밤색 도자기로써 가장 적은 수가 출토되었다. 이 도자기는 재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써 가끔 밝은 밤색을 띤 도자기가 출토되기는 하지만 짐작컨대 우연히 만들어진 도자기로 보인다. 동물 형상을 한 도자거나 꽃병 등에서 나타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납과 동을 섞은 유약을 입혀 아주 낮은 온도에 서 구운 도자기로써 왕느어 도요지인 통만 마을에서 1985년도에 출토되었다. 이 가마터의 도자기는 주로 아주 작은 꽃병이나 동물상, 호루라기, 작은 대접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그림 5> 위양까롱출토 도자기 @LTT.CRU



<그림 6> 위양까롱출토 도자기 @Khun Lek

위양까롱 지역은 도자기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지역의 태토에 있다. 태국 전역에서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고풍토와 흡사한 질을 가진 백토로 점성과 입자가 좋아 가볍고 단단한 재질을 자랑한다. 또한 1300도의 고온에서도 잘 견뎌서 그 순도가 아주 높은 아름다운 색감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열루미네스스 연대측정법으로 추정해 보면 약 13세기부터 제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양까롱의 도자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태토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되 반드시 손으로 모든 제작을 하였다.

둘째,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 졌으면 굽기 전에 최소 1년간 굳히는 기간을 가진다.

셋째, 초벌구이를 하는데 850도의 온도에서 구워낸다. 이때 유약은 아직 입히지 않는다.

넷째, 초벌구이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 다음 가마에서 끄집어내어 무늬를 새긴다.

다섯째, 유약을 입혀 유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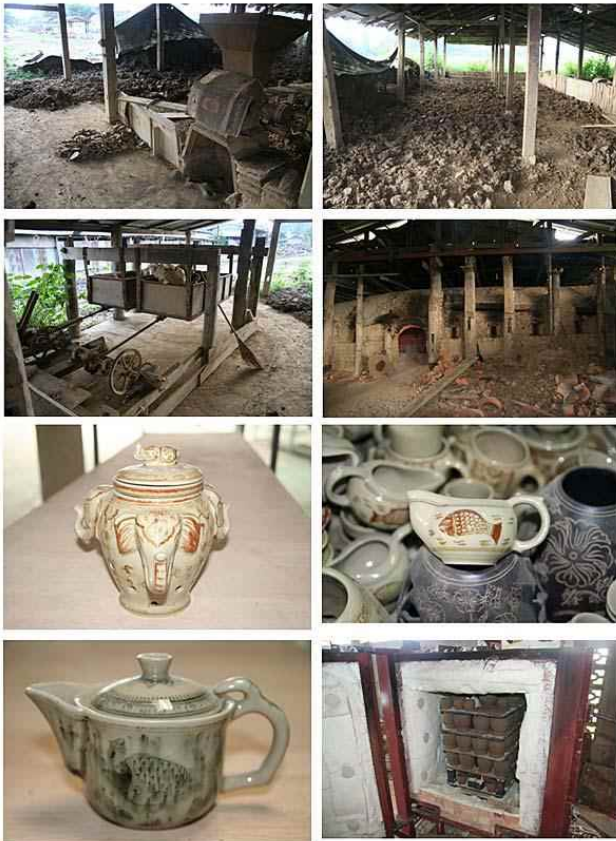
여섯째, 재벌구이를 하는데 보통 1275도~1300도의 온도에서 구워낸다. 완전히 식힌 뒤 가마에서 끄집어낸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위양까롱의 도자기는 점토질을 사용하여 구운 토기나 도기보다는 훨씬 더 질이 좋은 자기류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 도자기의 수준에 걸맞게 이 지역만의 무늬나 조각으로 도자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이는 불교의 탄생설화에 기초한 이 지역만의 5왕 설화가 바탕이 되어 도자기에 각종 무늬와 조각으로 재탄생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형태라 하겠다. 아누치트 교수에 의하면 이 지역의 5왕 설화 무늬는 란나 도자기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약 140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전통과 특성을 가진 도자기는 위양까롱에서 특별히 더 발전한 이유가 있다. 위양까롱사원의 주지인 싸난 탐마싸딕 승려에 의하면 이 지역민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발전보다는 정신적인 발전에 목적을 두고 살아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전통을 계승하고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러한 말을 뒷받침해 주는 예로써 이 지역의 도공들은 거의 대부분 위양까롱의 지역인이며 또한 대대로 도공의 자손이어서 도공에서 도공으로 이어지는 예술적 기법과 정신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양까롱의 도자기는 란나의 예술적 전통을 대표할만하다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오직 위양까롱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양질의 태토

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둘째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지역만의 불교설화에 기초한 내용으로 무늬를 그려내었고, 셋째로는 위양까룽 출신의 도공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지역유산으로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은 보다 현대적인 가마터를 운영하며 태국 도자기 산업의 선두주자로 상업적 양산을 하는 곳이 많아 졌으나 그 기법이나 정신은 란나의 예술정신을 이어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양까룽의 도자기는 위양까룽지역이 민속촌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위양까룽의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계승되어온 여러 가지 란나문화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8> 현대 위양까룽
가마터모습
@MMRI